

# GB커미션 작가들 광주 신작작업 속속 착수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열리는 2018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11일)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총 43개국 165작가가 참여하는 2018광주비엔날레는 11명 큐레이터가 7개 전시를 꾸미는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의 우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비엔날레 준비 상황

문화전당 등 관객과 만나는 다양한 퍼포먼스  
주제전 작품 운송 한창...내달부터 설치 작업  
티켓링크·네이버 등서 할인 예매티켓 구입 가능

◆광주 이야기, GB커미션 관심  
GB커미션에는 아드리안 비사르 로하스, 아피차pong 위라세타쿰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옛 국군광주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장소특정적 신작을 선보인다.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 관계자들도 현재 광주를 방문, 전시장소인 이강하미술관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객과 만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또 다른 즐거움 중 하나인 다양한 퍼포먼스가 전시공간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데이비드 테의 ‘귀환’ 섹션은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전시, 퍼포먼스, 워크숍 등의 형태를 통해 재고찰하며 우물솨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주요 출품작 및 전시가 열린 공간과 연계된 기억을 주제로 삼아 즉흥 퍼포먼스 ‘The Guest House’를

작가들은 속속 광주를 방문, 광주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공간들을 둘러보며 신작 작업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인 부모를 둔 카데르 아티아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영상 촬영을 진행 중이다. 망월묘역을 방문한 그는 앞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생존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로서 치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영상 작업과 조각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퍼포먼스를 펼칠 우물 솨로 작가.

이에 앞서 마이크 넬슨은 국군광주병원의 건축물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신작 제작에 나섰다. 아피차pong 위라세타쿰은 두차례 광주를 방문, 작품을 구체화시켰다. 두 사람의 작품이 전시되는 옛 국군광주병원은 관람을 위해 30분 간격으로 투어가 진행된다. 또 비사르 로하스는 광주극장에서 영화 ‘War of the Stars’를 촬영을 진행했으며 8월 말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그밖에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펼친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의 루앙푸라는 관객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며 뉴질랜드 작가 존 플레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다양한 퍼포먼스가 열린다. 로와정의 ‘trio’ 퍼포먼스는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3명의 퍼포머가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젝트다. 준 앙과 미치카츠 마츠네가 선보이는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a landscape in 4 scenes’는 바다를 통한 교류가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보여주며 소통과 탐험에 대해 탐구하는 퍼포먼스다.

◆주제전 작품 운송...북한작 반입 예정

클라라 김의 ‘상상된 국가들/ 모던 유토피아’, 그리티아 가위원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등 7개 주제전에서 선보일 작품 운송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8월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 각 섹션의 담당 큐레이터들의 방문도 이어진다. 클라라 김은 8월 6-18일까지, 크리스틴 Y. 김은 8월 7-21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작품 설치를 진행한다. 또 8월 말 참여작가들이 광주를 찾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 4일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다.

‘북한미술: 사회주의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에서 만날 작품들은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반입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장 소장품 및 워싱턴 예도예술재단에서 선별된 32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김성민(만수대창작사미술관부사장·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창호(인민예술가), 김인석(공훈예술가) 총 3명의 북한 작가 초청도 추진 중이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관심이 많은 북한미술전의 경우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2018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오픈하며 전국 주요 23개 역사 내 여행센터와 레크리에이션에서 KTX 열차표와 함께 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 티켓을 8월부터 판매한다.

또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네이버에서 행사 시작전까지 예매 입장권을 구입하면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단현 정성봉 수묵화 여행 스케치전



‘시골 아이들’

### 8월 2일까지 향담갤러리

단현(巨軒)정성봉 수묵화 여행 스케치전이 오는 8월2일까지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국내외 여행에서 마음에 담은 풍경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은한 수묵 담채화로 풀어냈다.

화폭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답양관광천의 풍경, 정겨운 시골 정서가 풍기는 함평 돌머리 가는 길의 모습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시원한 뱀사골의 정취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인물 군상도 눈

에 띈다. 곡성 5일장에서 농산물을 팔며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모습,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여성의 여유로운 자태, 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 더위를 쫓는 아이들 등 모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밖에 베트남, 장가계 등 해외에서 만난 풍광과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나갔다.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에서 수학한 정작가는 지금까지 8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조선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문의 010-3602-951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림책으로 떠나는 4개국 다문화 기행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초등생 강좌



여름방학을 맞아 그림책으로 떠나는 다문화 기행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떠나는 다문화 기행’ 강좌를 8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미국·브라질·과테말라·캐나다 등 아메리카 4개국의 전통과 문화를 그림책을 활용해 배워보고, 만들기·다육식물 심기·놀이 등 다양한 체험이 예정돼 있다.

먼저 8월 4일에는 ‘다양한 인종이 모

여 사는 미국’을 주제로 미국의 유산과 원주민에 대해 알아본다. 강좌 중에 드림캐처 만들기도 진행된다.

11과 18일에는 ‘자연을 지키는 브라질’, ‘미야문명의 중심지 과테말라’를 주제로 각각 세계 최대 우림 알아보기와 과테말라 문화 알아보기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25일에는 ‘붉은 단풍잎의 캐나다’를 주제로 캐나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함께 토템폴 만들기 등을 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69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차범석·이동주·문병란...광주·전남 출신 작고 작가 조명

### 문예지 ‘문학춘추’ 여름호

“희곡이 문학인데도 문학으로 대접하지 않은 우리 문단에서 용케도 버티고 나온 내 자신과 그리고 그 시대의 동지들을 생각해 본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은 번질나게 하면서도 희곡은 문단의 한 귀퉁이에서 눈치 보듯 살아온 40년이 꿈만 같다.”(차범석, ‘폐허에서의 홀로서기’ 중에서)

목포 출신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차범석(1924-2006)은 사실주의극의 대가였다. 남다른 극적 구조와 인물 창조는 희곡작법의 모범이라는 수사가 따랐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문예지 ‘문학춘추’

름호(통권 103호)가 지역 출신 작고시인들을 조명해 눈길을 끈다.

첫 번째 특집으로 예술회장이었던 희곡작가 차범석을 특집으로 다뤘다. 차범석의 삶과 희곡 인생, 그의 문학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수록돼 있다. ‘폐허에서 홀로 서기’에는 신



춘문에 등단 얘기, 대표 작품, 문정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다른 특집으로 해남 출신 이동주 시인(1920-1979)을 다뤘다. 시인인 손광은 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혼야의 시인 이동주 작품세계’에서 “그의 시에 대한 이해는 진정성과 향토성에 의해 유지 발전되며 풍류성과 정한성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면서 골격을 이룬다”고 평한다.

특집III에서는 광주 출신의 주기운(1928-2007) 시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주 시인은 광주문학상을 수상하고 원탁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여고 교장을 역임했다. 백수인 시인은 ‘그리움의 시학’이라는 글에서 “인간과의 인연과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그리움의 시학’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전통적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평한다.

문병란(1935-2015) 시인의 지역 문단에 대한 충언을 담은 글도 수록돼 있다. 특집 IV는 ‘우리 고장 문학의 미래’라는 고인의 글을 실었다. 문 시인은 ‘문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여향 우리 고장 문학의 미래’에서 “21세기 새로운 문학은 자연을 찾고 인간을 찾고 그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보다 정신적 우월을 제창하는 자연에 합일된 생명사상과 개인주의에 의한 경쟁에서보다 ‘다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삶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자연의 일체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계절의 초대시로 진현성 시인의 ‘무등산도 호을로’, ‘선달그믐에’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 7월말 · 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